

누적 득표율 80% 육박... '확대명' 구도 사실상 굳혔다

이재명 호남 경선도 압승

최고위원도 친명계 4명 당선권

송갑석 후보 6위로 뛰어올라

투표율은 30%대 그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북(20일)에 이어 광주·전남지역 순회 경선(21일)에서도 압승을 거두면서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구도도 사실상 굳혔다. 특히,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78.35%로 80%에 육박하고 있다. 이전 전당대회에 비하면 압도적 득표율이다. 2년 전 치러진 전대에서 이낙연 대표는 '어대남'(여차피 대표는 이낙연) 대세를 타고 당선됐지만 득표율은 60.7%였다. 또 지난해 4·7 임시전당대회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35.60%로, 홍영표(35.01%) 후보에 0.59%포인트 차 신승을 거뒀다.

이번 당권 경쟁 구도가 일방적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 후보가 불과 5개월 전 대선후보였고 당내 주류 세력인 친문(친문재인)계에서 마땅한 후보를 내세우지 못했다는 점이 꼽힌다. 특히 대선을 기점으로 이른바 개팔(개혁의 팔)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대거 당원으로 가입한 것이 '이재명 대세론'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최고위원 경선도 확대명 기류에 힘입어 친명(친 이재명) 주자들이 대거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다. 현재 누적 득표율을 보면 당선권에 진입한 정경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후보 등 5명 가운데 친문(친문재인)계인 고민정 후보를 제외하고 4명이 친명계로 분류된다. 호남 단일 주자인 송갑석 후보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선전을 바탕으로 누적 득표율 6위(9.09%)로 뛰어올랐다. 3위와 1.7%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결국, 수도권 경선 및 대의원 투표의 결과에 따라 송 후보의 당선권 진입 여부가 결정지어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차기 지도부가 친명 친정 체제로 꾸러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가 지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까지 포함하면 민주당 지도부는 친명 색채를 분명하게 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주류였던 이재명 의원이 사실상 민주당을 접수, 당내 주류로 부상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득주에는 그늘도 만만치 않다. 당장, 친명 일색의 지도부는 당내 역동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당내 갈등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는 여권이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라는 말도 나온다. 또 권리당원 경선의 낮은 투표율은 민주당에 대한 민심의 실망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투표라는 점에서 최소 과반 이상의 투표를 기록해야 하나 현실은 이에 한참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의 핵심 기반인 호남지역 권리당원 투표율이 이전까지의 평균 투표율(37.69%)에도 못 미친 것은 뼈 아픈 대목이다.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호남 민심이 민주당의 미래를 탐탁치 않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선 패배 직후 치러진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는 37.66% 투표율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 같은 호남 민심의 무관심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 호남의 낮은 투표율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지역 정치권도 호남 민심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차기 총선에서 '물갈이 바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호남 민심은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 그 어느 곳에도 기대지 못하는 '정치적 섬'이 되고 있다"며 "부글부글 끓는 호남 민심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강력한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1대 국회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정진석 국회 부의장,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 부의장, 이광재 사무총장, 이진복 정무수석, 윤 대통령, 김대기 비서실장. /연합뉴스

윤 대통령 "의회가 국정 중심... 정치개혁 전반 생각 열려 있다"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

선거법 개정·개헌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은 국가 위기관리와 외교·안보 분야에 많이 가고, 의회가 국정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3시간 가량 진행된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협치 의지를 밝히면서 국정 동반자로서 야당의 협력을 강조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만찬에서는 선거법 개정과 대통령제 개헌 등이 논의의 주제로 올랐다고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통합형 개헌'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게 결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 선거법·정당법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때라는 의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저는 정치개혁 전반에 대해 생각이 열려 있는 사람이다. 대한민국 발전에 필요하다면 논의 할 주제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 전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다만 개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 김 의장이 "선거법, 정당법 등을 이제 다 손볼 때가 됐다"고 하자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제도 같은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다. 대선제도 자연스럽게 방지되고..."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도 초

당적인 의원외교를 당부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여야 의장단도 "의원외교를 부산 엑스포 유치 작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인식을 같이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세종시 행정 비율을 문제가 있다'는 의장단의 지적에 "세종시에 대통령제 2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역적인 결정으로, 되돌릴 수 없다"며 "법안도 다 통과됐다. 추진해야 한다"고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달 13일 행안부가 "12월 준공되는 세종청사 중앙동에 임시집무실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공약 파기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제 2집무실 세종 설치 공약은 반드시 지켜질 약속"이라며 논란을 일축한 바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정책기획수석 이관섭·홍보수석 김은혜

대통령실 직제·인적 개편

신임 안보실 2차장 임종득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해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이 자리에 발탁했고, 새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에는 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이 기용됐다.

기존 최영범 홍보수석은 '대외협력특보'를 맡아 전반적인 국정홍보 업무를 측면지원하게 된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21일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하는 일부 참모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홍보라인을 보강하고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은혜 신임 홍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으로 활동한 대표적인 '언론통' 인사로 꼽

힌다. MBC 기자·앵커 출신으로, 2008~2010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제2대변인 등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도 도전장을 냈고,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의 접전 끝에 0.15%포인트 차로 패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이관섭 신임 정책기획수석은 산업부에서 에너지 자원실장, 산업정책실장을 거쳐 차관을 마지막으로 2016년 공직에서 물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거쳐 이마트·SKC 사외이사 등을 맡으면서 민간분야 경험을 쌓았다.

임종득 신임 안보실 2차장은 육사 42기로 합동참모본부 비서실장, 육군 17사단장을 역임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방비서관으로 일했다. 안보실 2차장은 국방 상황 전반을 관장하는 자리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갈등중재' 여야 중진협의체 가동 주목

의장단 만찬서 김의장 제안

윤 대통령도 "좋은 생각"

9월 정기국회를 즈음해 여야를 아우르는 중진협의체를 가동하는 방안이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공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내 중진과 원로들이 나서서 꺾막힌 교착

상황을 뚫고 정치를 복원하자는 차원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하나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여야 중진협의체 구성 문제는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3시간 가량 진행된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거론,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여야 모두 팬덤정치의 영향으로 극단화한 탓이 크고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들에게 역할을

주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 중진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한 바 있다.

김 의장의 제안은 교섭단체 중진모임인 원로협의회가 정법법안이나 이견 있는 안건을 조정하고, 의회 구성원들은 그 합의사항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립된 독일 연방의회를 롤모델로 한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당시 만찬 참석자들은 "좋은 생각"이라며 호응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21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 좋은 생각이 것 같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